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활동의 특징 - 3·4학년 을 중심으로 -

주 대 창*

본 연구는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활동의 주요 현황과 시사점을 밝혀 효율적 기악지도의 패러다임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표적 초등음악교과서인 Fidelio의 3학년용과 4학년용, 그리고 RONDO 음악교과서 시리즈의 3·4학년용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 악기와 그 활용 방식을 살펴보고, 기악 중심 단원의 활동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악기의 학습보다 악기의 활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공통 악기를 자제하고 사용 가능한 악기의 폭을 넓히며, 짧고 단순한 부분들로 엮인 연주곡을 제시하며, 나아가 분절적 기악활동을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통합의 방식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고려하여 구별된 기악곡을 중심으로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이 같은 악기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기악활동의 효용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고 제안한다.

* 주제어: 기악활동, 기악지도, 음악교과서, 초등음악수업

차 례	
I. 서론	
II. 사용 악기	
1. Fidelio	2. RONDO
III. 악기 활용	
1. 사용 빈도	2. 활용 방식
IV. 기악 중심 단원의 구성	
1. 단원 현황	2. 주요 유형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악활동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사회의 음악 수요가 변하고, 악기를 익히고 활용하는 양상도 달라졌다. 학교 음악교육에 부여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는 기존의 기악지도 방법을 변화·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악기의 기능을 숙달시키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 포괄적 역량을 제고하려면 기존의 기악지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악기 관련 활동의 안내는 학교 기악수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교 음악수업이라는 제한된 틀에서 이루어지는 기악활동은 개인의 악기 레슨이나 기악 동아리 활동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음악선호 및 실기능력이 다양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 학습의 형태를 띤다. 따라서 학교 음악수업에서의 기악활동은 일반 악기 레슨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음악교과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기악활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발생한다. 악기 종류는 어떤 것이어야 하며, 개별 악기의 연주법은 어느 정도로 안내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한된 지면에 어떤 기악곡들을 채워야 하는지 등의 하위 과제들이 탄생한다. 그런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긴 음악교과 전통을 지니고 있고 초등 음악수업에 기악활동이 도입되는 데 큰 기여를 한 오르프접근법의 탄생지이다. 따라서 비록 사회의 여건은 다를지라도 독일의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지도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나름의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초등학교 기악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독일의 최근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활동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현대 학교음악교육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기악활동이라고 함은 악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음악연주 활동으로서 목소리 연습 또는 음향 찾기 놀이를 위한 악기 음 시연, 음이름 학습에서의 음판악기 또는 건반악기 연주 행위 등의 단순 악기 활용은 제외된다. 본 연구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독일이 학교 음악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한국과 유사한 음악교과 및 음악교과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 교과로서 음악교과와 음악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지엽적 기능이나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활동 위주의 음악 향유를 장려한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대표적 음악교과서로서 최근 개정을 마친 두 종류의 학생용

도서에 들어있는 기악 관련 단원의 악기들을 조망해 보고, 이어서 그 활용 방식을 유목화하여 살펴본 후, 주요 기악 단원의 지도방식을 점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일의 최근 교실 기악지도의 노하우와 그 함의를 밝히고, 음악교과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기악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음악교과서에 담겨있는 기악활동의 양적 분석은 민경훈(2014, p. 54)이 개발한 분석 준거(‘기악영역 빈도 수’, ‘기악곡 수’, ‘등장 악기의 종류’ 등)를 참고하여 등장악기의 종류, 기악영역 빈도수를 우선적으로 보았다. 기악곡 수는 독일 음악교과서가 기악 제재곡을 거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분석 기준에 넣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의 단독 기악단원 및 기악곡 수가 매우 적음을 적시하고 있다(함희주, 문경숙, 2016, p. 132).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말미에서 독일 음악교과서의 기악활동에 나타난 주요 특징의 하나로 정리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독일 초등음악교과서는 *Fidelio* 3(Braun-Rehm, Hellmann, Zigl drum, 2016) 및 *Fidelio* 4(Braun-Rehm, Hellmann, Zigl drum, 2017)와, *RONDO* 3/4(Krämer & Junge, 2014/2017)이다. 이 책들은 최근에 개정된 독일 음악교과서 중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Fidelio*의 이전 본은 2003년 및 2004년에 나왔다. *RONDO*의 이전 본은 1999년에 나왔고, 2014년 개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2014년 개정본의 세 번째 인쇄판이다. 그 동안 *RONDO* 3/4에서 단원 운영의 변화가 있었다. 이전처럼 2개 학년을 위한 합본이지만, 그 안에 학년 구분을 두지 않은 공용 단원의 형태를 보인다. *Fidelio* 시리즈는 이전처럼 단일 학년용으로 제작되었다.

II. 사용 악기

1. *Fidelio*

본 연구에서는 기악활동에 쓰이는 악기를 크게 몸울림악기, 막울림악기, 공기울림악기, 그 외 악기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연주 방식을 고려하여 기악활동의 다양성을 쉽게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몸울림악기 및 막울림악기는 악기학자인 호른보스텔(E. Hornbostel)과 작스(C. Sachs)의 구분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 학교 현장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전통 서양악기 밖의 악기들까지 분류하는 데는 유용한 면이 있다(홍정수, 조선우, 2000, pp. 27-29). 이 구분법에 따르

면 몸울림악기(idiophpne)는 악기의 몸 자체가 울려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이다. 막울림악기(membranophone)는 악기에 씌워진 막이 울려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북 종류의 악기를 일컫는다. 공기울림악기(aerophone)는 공기를 울려서 소리는 악기로서 관악기 계열의 악기가 이에 해당한다(앞의 책, p. 27). 그 외의 악기들은 소수이거나 종합악기여서 그것들을 따로 묶어 열거하였다. 이를테면 드럼세트는 몸울림악기와 막울림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세트 형태의 악기여서 개별 악기들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Fidelio*의 기악활동에 등장하는 악기를 전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Fidelio*에 제시된 악기

구분	악기 종류	참고
몸울림악기	▶신체타악기: 다양한 신체 부위 ▶물건타악기: 풍선, 의자, 빗자루, 숟가락 세트, 그릇, 컵, 필통, 강통, 수세미 등 ▶일반타악기: 심벌, 손가락 심벌(아기 심벌), 트라이앵글, 방울다발(탬버린 형태), 손목방울(팔찌방울), 탬버린(방울북), 소리막대(클라베스), 귀로, 우드블록(나무토막북), 나무관북, 카혼, 마라카스, 레인스틱(4학년), 붐웨커 ▶음판악기: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자체제작: 카주(3학년), 빗소리북(3학년), 윙윙이(3학년), 대나무귀로(4학년) 카시시(4학년)	• 방울 종류 3가지 • 자체제작 악기 다수
막울림악기	▶큰북, 손북, 탬버린(방울북, ※일반타악기와 겹침) ▶궁가(4학년) ▶자체제작: 화분북(4학년)	• 탬버린: 북과 방울의 조합
공기울림악기	▶리코더 ▶자체제작: 물병관악기	
그 외	▶드럼세트(4학년), 물건드럼세트(4학년) ▶피아노, 키보드(4학년), 태블릿 피아노 앱(4학년) ▶자체제작: 고무줄하프(4학년)	• 태블릿의 앱을 건반악기로 사용

신체타악기는 손과 발과 무릎 등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물건타악기는 신체타악기보다 종류가 더 많다. 주변의 다양한 물건을 악기로 쓸 수 있으며, 눈에 띄는 것은 빗자루나 의자 등 교실공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과, 그릇, 숟가락, 수세미 등 주방용품이다.

일반 타악기는 심벌, 트라이앵글 등 쇠소리 계열과, 소리막대, 귀로 등 나무소

리 계열의 악기가 주류를 이룬다. 이밖에 다양한 방울들이 사용된다. 에스파냐어로 상자라는 뜻의 남아메리카 악기인 카혼(Cajon)이 눈에 띈다. 카혼 악기가 없으면 의자를 돌려서 앉고 그 등반이를 대용 악기로 사용하게 한다. 레인스틱은 4학년 음악교과서에 추가로 나타난다.

일반 타악기 중 가락을 연주할 수 있는 유율악기로는 북웨커가 쓰인다. 하지만 사용 빈도를 고려할 때 가락 또는 화음 연주를 위한 중심적 악기는 음판악기이다.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이 비교적 고르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리코더가 쓰이고, 피아노나 키보드 등의 건반악기도 활용된다. 태블릿 컴퓨터에 피아노 앱을 설치하여 그것을 건반을 쓰는 것도 안내하고 있다.

사용 악기의 현황에서 주목을 끄는 것 중 하나가 자체제작 악기이다. 여러 악기 군에서 활용되지만, 몸울림악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시를 볼 수 있다. 카주(Kazoo)는 웅원웅 소리도구이며 종이 관을 이용해 만든다. 빗소리북(Regentrommel)은 일종의 오션드럼(ocean drum)인데 흐르는 물소리를 표현하기에 적당한 악기이다. 웅잉이(Summ-Instrument)는 작은 물체에 떨혀를 붙이고 줄에 매달아 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대나무귀로는 빨래판처럼 굽어서 소리를 얻는 악기이며, 카시시(Caxixi)는 셰이커의 일종으로 리듬연주용 마찰음을 얻는 데 사용한다.

막울림악기로는 큰북, 손북, 탬버린, 콩가가 사용되고, 화분을 이용한 자체제작 북이 쓰인다. 공기울림악기, 다시 말하면 관악기에는 리코더와 물병악기가 있다. 후자는 자체제작악기로서 물병에 물을 채워 조율한 후 사용한다.

그 외의 악기로는 앞에서 언급한 피아노, 키보드, 피아노 앱, 드럼 세트가 쓰인다. 자체제작 악기로 상자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고무줄악기와, 울림이 좋은 크고 작은 물건들을 모아 배치한 물건드럼세트가 있다.

2. RONDO

RONDO의 기악활동에 등장하는 악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RONDO에 제시된 악기

구분	악기 종류	참고
몸울림악기	▶신체타악기: 다양한 신체 부위 ▶물건타악기: 빗자루, 가방, 의자, 학용품, 주방용품 등 ▶일반타악기: 심벌, 트라이앵글, 방울다발(탬버린 형태),	●마찰음 악기 (마라카스, 카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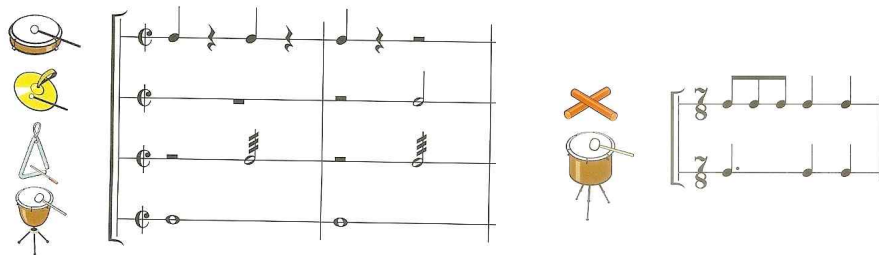
구분	악기 종류	참고
	소리막대(클라베스), 귀로, 우드블록(나무토막), 나무관 북, 카혼, 템플블록(세트), 마라카스, 카바사, 에그셰이커, 비브라슬랩, 붐웨커 ▶음판악기: 실로폰, 메탈로폰, 글로켄슈필, 외톨이음판 ▶자체제작: 카주, 레인스틱	비브라슬랩 등) 추가 ●외톨이음판 사용
막울림 악기	▶손북 ▶물건북(플라스틱 그릇) ▶봉고 ▶교실팀파니, 받침북	●팀파니 계열 북 사용
공기울림 악기	▶리코더 ▶슬라이드 휘슬 ▶자체제작: 팬플루트, 물병관악기, 호스관악기, 빨대피리, 대나무클라리넷	●자체제작 관악기 다양화
그 외	▶드럼세트 ▶피아노/키보드 ▶기타/우크렐레	●기타 사용

기악활동에 쓰이는 신체타악기와 물건타악기는 기본적으로 *Fidelio*에서와 유사하다. 일반 타악기에서 템플블록(세트), 카바사, 에그셰이커, 비브라슬랩이 새롭게 나타난다. 그리고 음판악기로서 외톨이음판, 즉 날개의 음판을 명시적으로 안내한 것이 눈에 띈다([그림 1] 참조). 자체제작 악기 중 *Fidelio*에서와 공통인 것은 카주이며, *Fidelio*에서 보이지 않던 레인스틱이 포함되었다.



[그림 1] 음판악기와 외톨이 음판의 사용(RONDO 3/4)

막울림악기로는 *Fidelio*에서와 같이 손북이 쓰이고 있다. 큰북과 콩가는 보이지 않으나 팀파니 계열의 악기와 봉고가 등장한다. 큰북과 교실파니, 콩가와 봉고는 울림의 성격과 악기의 쓰임새를 고려할 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을 끄는 것은 교실파니와 받침북 등 팀파니 계열의 북인데, 이것들은 덮개 가죽의 긴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음의 성향을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교실파니와 받침북(RONDO 3/4)

공기울림악기로는 리코더 외에 슬라이드 휘슬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1] 참조, 리코더 뒤편). 또한 특이하게 다양한 자체제작 관악기들이 쓰인다. 이것은 관악기의 원리를 파악하고 실습하며, 그것을 악기로 활용해 보는 통합적 활동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결과로 이해된다. 물병관악기는 *Fidelio*에서와 같이 병에 물을 채우고 조율하여 사용한다.

그 외 악기에는 드럼세트, 피아노, 키보드, 기타, 우크렐레가 쓰인다. 피아노와 키보드, 기타와 우크렐레는 상호 대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된다. 기타와 우크렐레에 대한 안내가 *Fidelio*에는 없고, *RONDO*에만 나타난다.

Ⅲ. 악기 활용

현대 음악수업에서는 음악활동의 종류와 지도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음악 활용을 폭넓게 수용함과 동시에,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융·복합의 역량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독일의 초등음악교과서에서는 개별 단원이 특정 음악활동에 치우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여러 가지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특히 기악영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다(함희주, 문경숙, 2016, p. 135). 따라서 악기가 사용된 의도나 방식 등이 악기 기능지도에 초점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독일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음악교육 활동 중 악기가 쓰이는 경우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사용 빈도

전체 음악수업에서 악기 사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는 실제 음악수업에서의 활동 시간을 살펴보아야 하나, 음악교과서의 활동 안내에는 시간의 양이 나타나지 않아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음악교과서의 지면 구성이 일반적으로 좌우 2면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음악교과서의 좌우 두 면을 활동 단위로 여기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 음악교과서의 지면 중 악기 활동이 제시된 지면의 수로 기악활동의 빈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Fidelio*는 활동 안내에 3학년용과 4학년용이 각각 98쪽을 할애하고 있다. 이것은 차례나 부록 등 부수적 지면을 제외한 수이다. 그 가운데 3학년용의 경우 42쪽에서 악기 활동이 안내된다. 4학년에서는 37쪽이 악기 활동을 담고 있는 지면이다.

3학년과 4학년의 통합본인 *RONDO*는 활동 지면으로 모두 184면을 쓰고 있다. 그 가운데 모두 77쪽에서 기악활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기악활동 지면과 활동 수

구분		전체 활동 지면	기악활동 지면	기악활동 안내
Fidelio	3	98 (100%)	42 (42.9%)	44회
	4	98 (100%)	37 (37.8%)	46회
	소계	196 (100%)	79 (40.3%)	90회
RONDO		184 (100%)	77 (41.8%)	89회

기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지면은 평균 41.0%로서 전체 지면의 3분의 1을 훨씬 상회한다. *Fidelio 4*에서 다소 낮은 빈도를 보이지만 3·4학년 전체를 아우르면 *Fidelio*와 *RONDO*가 유사한 정도로 기악활동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면에 두 가지의 기악활동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악활동을 안내하는 전체 지면 수와 활동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Fidelio 3*에서는 2개 지면에서,

Fidelio 4에서는 9개 지면에서, 그리고 *RONDO* 3/4에서는 12개 지면에서 복수의 기악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면이 전적으로 기악활동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보려는 기악활동의 유형이 복잡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2. 활용 방식

초등학교 3·4학년 단계의 음악수업에서 어떤 기악활동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전체 기악활동의 성격과 목표 나아가 개별 학생의 기악관련 성취 능력을 가늠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의 기악활동은 리듬악기를 활용한 반주, 전주 및 후주, 상황이나 이야기 등의 표현 음악 연주(이하 ‘표현 음악’으로 줄임.)가 있다. 그리고 가락악기를 활용한 반주, 전주 및 후주, 가락 연주, 기악 합주가 있다. 가락 연주라고 분류한 것은 반주나 전주 등의 부수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합주의 형태에도 해당하지 않은 단선율 가락의 연주를 의미한다. 리듬은 모두 복합 방식으로 연주되므로 단일 리듬 연주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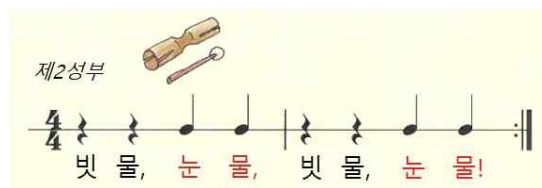
상황이나 이야기 등의 표현에는 부분적으로 가락악기가 함께 쓰인다. *Fidelio*에서는 상황이나 이야기 등의 표현을 모두 리듬악기로 연주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RONDO*에서는 가락악기가 함께 쓰이거나 가락악기(물병관악기)만으로 연주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기악 합주는 단원 설정이 처음부터 합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Fidelio 및 *RONDO*에 제시된 기악활동의 종류와 그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기악활동의 종류 및 횟수

구분	리듬 반주	리듬 전주	가락 반주	가락 전주	가락 연주	표현 음악	기악 합주	계
<i>Fidelio</i> 3	29	2	6	2	1	3 (리듬악기)	1	44
<i>Fidelio</i> 4	26	1	12	2	2	2 (리듬악기)	1	46
소계	55	3	18	4	3	5	2	90
<i>RONDO</i> 3/4	32	4	29	5	3	8 (가락악기 포함)	8	89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리듬 반주는 가장 흔한 악기 활용 방식이다. 독일 초등 음악교과서에서는 리듬 반주에 사용되는 악기로 기성제품 형태의 타악기와 자체 제작 타악기, 그리고 신체타악기 등이 고루 쓰인다. 리듬 반주의 기본은 일정 리듬 패턴을 예시하고 그것을 노래와 함께 연주하는 오스티나토 리듬의 연주이다(앞의 [그림 2] 참조). 그런데 *Fidelio*의 경우, 리듬 반주에 전반적으로 음절(말소리)을 더하여 제시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음절을 곁들인 리듬 오스티나토(*Fidelio* 3)

리듬 전주나 리듬 후주는 노래의 시작 전에 또는 끝에 연주하는 리듬 오스티나토이다. 이 때 복합적 활동이 자주 안내된다. 이를테면 기존 타악기가 연주하는 리듬에 신체타악기의 리듬과 음절(목소리) 리듬을 더하고, 거기에 신체움직임(춤 동작)을 곁들이게 한다([그림 4] 참조).

	4/4 bum bum sha-la-la-la-la bum bum 1 2 3
목소리 & 신체타악기	4/4 m dz m m dz
	4/4 옆 가고 옆 가고
목소리	4/4 tschi-ki tschi-ki tschi-ki tsch

[그림 4] 복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리듬 전주(*Fidelio* 4)

④

(p. 91)

Fidelio 4

①

(p.90)

RONDO 3/4

①

(p. 30)

②

(p. 156)

③

(p. 173)

[그림 5] 리코더를 활용한 전주/간주/후주

반주나 전주 또는 합주 형태가 아닌 가락 연주는 고찰 대상의 음악교과서에서 모두 5회 나타난다. *Fidelio 3*에는 노래의 후렴 가락에 한 성부를 덧붙이는 8마디의 가락 연주가 1회 나온다. *Fidelio 4*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키보드로 노래 가락을 연주해 보는 활동이 있고, 리코더로 2성부 노래 가락을 연주해 보게 하는 활동이 있다. 후자는 노래 소리를 후원하기 위하여 노래와 동시에 리코더로 가락을 연주하는 활동이다. 반주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나, 독립적일 때는 리코더 2중주의 형태가 될 여지가 있다. *RONDO 3/4*에는 연주곡의 형태로 연주되는 단선율 가락이 3회 제시된다. 첫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건반악기 활용의 일환으로 <트로이메라이> 가락을 연주해 보는 것이다. 둘째, 창작 활동과 연계된 연주로서 주어진 동기들을 질문과 대답의 흐름이 살아나도록 연결하여 가락악기로 연주해 보는 것이다. 셋째, 역시 창작 활동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연주로서 주어진 가락의 일부를 보완하고 새로운 가락을 덧붙여 연주해 보는 것이다.

상황이나 이야기 등의 표현 연주는 표현대상을 글이나 그림 또는 그림악보로

제시하고 그것을 악기들로 풀어내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중학년임을 고려하여 그 립악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Fidelio 3*과 *Fidelio 4*에서는 모두 5곳에서 표현 음악을 다루고 있으며, 모두 타악기로 연주하게 한다. *RONDO 3/4*에서는 모두 8개의 표현 음악 활동이 있다. 그 가운데 리듬악기나 가락악기를 포괄하여 표현하게 하는 경우가 7개, 가락악기(물병관악기)만으로 표현하게 하는 경우가 1개 있다.

기악 합주로 분류해 본 활동에서는 여러 악기 또는 여러 성부가 어우러진 다성부 형태의 기악곡을 연주하게 한다. 이러한 기악수업은 해당 단원이 자연스럽게 기악 중심의 성격을 지니게 한다. 이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악 중심 단원의 구성을 살펴보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V. 기악 중심 단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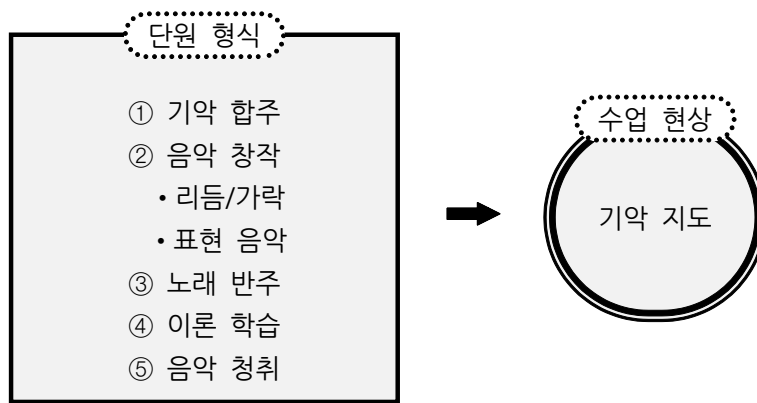
1. 단원 현황

*Fidelio 3*과 *Fidelio 4* 그리고 *RONDO 3/4*에는 기악 영역만을 따로 분리해 다룬 단원이 많지 않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악활동이 수업의 중심에 오는 단원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단원의 구성을 추적하면 독일 초등학교 기악활동의 주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고찰 대상의 음악교과서에서 기악활동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단원을 모아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악기 활용 방식(<표 4> 참조)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악 중심 단원으로 우선 기악합주를 전면에 내세우는 단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단원 외에 단원 구성의 초점이 음악 창작에 있지만 기악활동 비중이 높은 단원이 있다. 다양한 소리를 실제 악기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엮어서 연주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표현 음악 만들기도 한몫을 한다. 또한 노래를 사용하더라도 기악적 음향구성을 중심에 두는 단원이 있다. 특히 전주나 후주를 넣고 노래의 각 부분에 다양한 반주를 곁들이면 전체 음악활동이 하나의 합주 형태가 된다. 이 유형에는 가락 중심의 노래가 아닌 랩 형태의 노래가 쓰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노래 반주 형태의 기악 중심 단원으로 분류 한 것은 리듬 반주와 가락(화음) 반주가 함께 사용될 때, 3성부 이상의 화음 반주가 이루어질 때, 또는 3성부 이상의 복합적 리듬 반주가 이루어질 때이다. 나아가 기존 노래나 기악곡을 음향

기기로 들으며 그 음악에 더하여 연주하는 유형이 있다. 청취하는 음악이 노래인 경우 일종의 반주 보강이 되며, 기악곡인 경우 편성 또는 편곡 보강이 된다. 끝으로 음악이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악기를 사용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합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실음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는 도구, 즉 악기를 쓰고, 그 결과를 체험하는 단계에서 기악활동이 중심에 있게 된다.

이상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이 모두 5가지가 나온다.



[그림 6] 기악 중심 단원의 접목 형태

위의 분류를 각 음악교과서에 적용하여 그 분포를 파악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눈에 띄는 것은 단위 구성에서 처음부터 기악활동을 전면배치한 순수 기악합주 단위 못지않게 노래활동이나 표현 음악 만들기와의 연계된 단원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노래 반주의 형태로 기악활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다음의 <표 5>에서 이론 학습으로 분류한 것은 가락 연주(2회)와 노래 반주(1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표 4> 참조). 음악 청취 활동은 *Fidelio* 4에서 1회 리듬 반주의 형태를 띠며, 나머지는 모두 가락 반주의 모습을 보인다. 창작은 가락 연주나 반주 또는 합주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4>의 기악활동 종류는 악기를 연주하는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 <표 5>의 기악 중심 단원의 분포는 단원의 내용과 흐름을 고려한 것이다.

<표 5> 기악 중심 단원의 분포

구분	기악 합주	창작	표현 음악	노래 반주	이론 학습	음악 청취	계
<i>Fidelio 3</i>	1	1	3	3	0	0	8
<i>Fidelio 4</i>	1	1	2	6	0	3	13
소계	2	2	5	9	0	3	21
<i>RONDO 3/4</i>	8	2	8	20	3	2	43

2. 주요 유형

대표적인 기악 중심 단원은 기악활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기악합주 단원이다. 두 음악교과서의 기악합주 단원은 8곳이며, 리듬합주와 가락합주가 각각 4곳이다. 가락합주 단원 중 1곳은 자체제작 관악기들의 창작 론도 연주이다. 따라서 전통적 관점의 화성적 어울림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듬합주의 대표적 예로 빗자루 음악 연주하기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Fidelio 3* 및 *RONDO 3/4*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단원으로서 물건악기인 빗자루를 악기로 이용한다. 실제 활동에서는 모듈별로 주어진 성부를 연습한 후, 그것들을 이어서 론도 방식으로 합주한다.

*RONDO 3/4*에 제시된 리듬합주 단원에는 물건악기(주방용품)를 사용한 곳이 있다. 먼저 복합적 리듬합주 악보를 제시하고, 그와 유사하게 음악을 발전시켜보라는 안내가 덧붙여진다. 다시 말하면, [그림 7]에 제시된 부분에 더하여 새로운 리듬 주제와 악기를 사용하여 론도 형태로 연주한다.

가락합주의 대표적 예로 *RONDO 3/4*에 제시된 “나의 작은 기차” 단원을 들 수 있다. 전주, 합주, 독주로 나누어 연습한 뒤 그것에 순서를 부여하여 함께 연주하는 활동이다. 기차를 표현한 음악(빌라 로보스 <카피라의 작은 기차>을 들으며 빠르기나 셈여림 등의 음악적 표현 방법을 인지하고 그것을 응용하여 연주하게 한다.

창작 활동과 연계하여 리듬이나 가락, 또는 표현 음악을 만들어 연주해 보는 기악 중심 단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흐름을 지닌다. 즉, 악기를 통한 음향 또는 모티브 실험을 하고, 그것을 모아 종합하여 연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표현 음악 만들기일 경우는 먼저 표현 대상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소금 뿌리기,
후추 그라인더
채소 탈수기,
거품 기구, 사발
요리 주걱,
샐러드 철판
무던 나이프,
술가락
달걀 커터

A **B**

A **C**

A **A'**

[그림 7] 주방용품을 이용한 리듬합주(RONDO 3/4)

노래 반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악합주는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에서 가장 흔한 기악 중심 단원이다. 물론, 기악 반주가 곁들여진 모든 노래 단원이 기악 중심 단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은 기악 활동의 비중이 높고, 반주 음향의 종류와 층위를 다양화하여 전체가 합주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이다. 기악 활동의 안 내에서는 각 성부를 하나의 보표에 넣어 묶지 않고 대부분 개별로 제시하여 맑은

연주 과제에 집중하기 쉽게 한다([그림 8]). 수업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먼저 노래를 익히고 그것에 대한 전주, 간주, 후주, 반주 등의 악기 연주를 더한다. [그림 8]의 예는 노래의 일정 부분(B 부분)에 손북 리듬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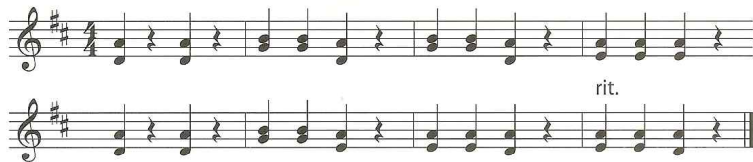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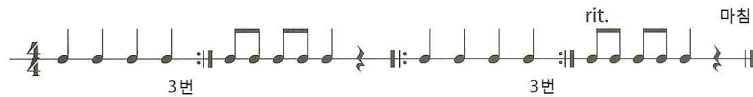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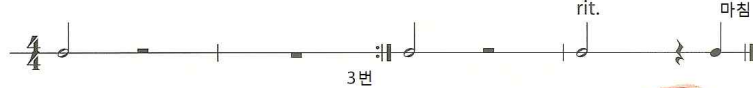
작사 : Hans-Jürgen Netz 작곡 : Reinhard Horn

반주 : A 부분, B 부분







반주 : B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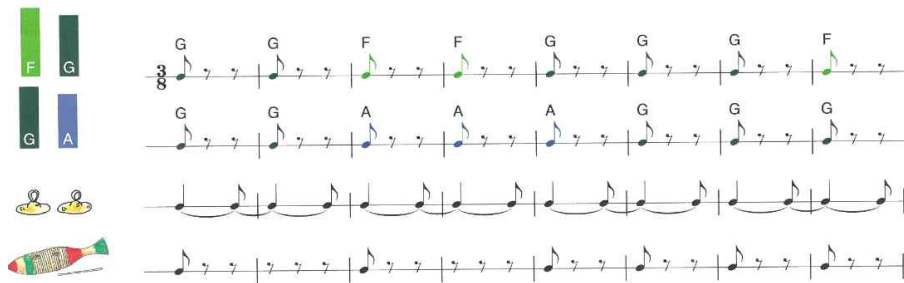


[그림 8] 노래 반주 형태의 기악합주(RONDO 3/4)

이론 학습과 연계된 기악활동에서는 먼저 박자에 따른 음가나 3화음을 배우는 과정에 악기를 활용하게 한다. 이어서 그러한 사전 활동을 바탕으로 일정한 길이

의 기악곡을 만들어 함께 연주를 해보는 유형이다. 연주곡의 전체를 창작하게 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개 부분 완성 또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게 한다.

음악 청취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악활동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게 편곡된 기악곡을 익혀서 해당 감상곡과 함께 연주한다. 녹음된 음악을 쓰는 방식이지만 일종의 협연 형태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Fidelio* 4의 “동물적으로 음악적으로” 단원에서는 생상스(C. Saint-Saëns)의 <코끼리>를 들으며 붐웨커, 심벌, 귀로 등의 악기를 연주한다([그림 9]). *RONDO* 3/4의 “겨울” 단원에서는 비발디(A. Vivaldi)의 《사계》 중 <겨울>에 맞춰 리듬과 가락을 연주한다.



[그림 9] <코끼리> 청취와 병행하는 악기 연주(*Fidelio* 4)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최근 독일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지도는 악기 연주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악기 주법에 대한 학습 안내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악기가 오르프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타악기(오르프 악기)여서 사전 학습 없이 음악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해당 악기에 대하여 누군가 따로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익혀 연주에 참여하게 하는 안내가 돋보인다. 이른바 오르프 악기가 아니더라도 기악활동을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악기 학습의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악기가 사용됨에도 이러한 기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은 연주

기능의 숙달을 전제로 한 악기를 전체 악기로 지정하지 않는 데 있다. 즉석 연주가 가능한 오르프 악기를 제외하고 다른 악기들은 모두 선택적 사항인 것으로 안내한다. 여기에는 피아노나 리코더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활동 안내를 할 때마다 “너, 리코더 연주하니? 그렇다면 너는 이 노래에 전주 또는 후주를 연주할 수 있어.”를 덧붙인다(*Fidelio 3*, p. 77, [그림 10] 참조). 리코더를 전체 학생이 함께 연주하는 활동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연주 역할 중 하나로 리코더를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일반화된 리코더 학습용 단일 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재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기악곡을 단원의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제시된 기악곡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고찰 대상의 전체 음악교과서를 망라하여도 기악곡의 연주를 곧바로 목표로 내세우는 활동 전개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악곡의 수준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등에 예시한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으로 기악곡의 길이가 짧다. 긴 시간의 연주를 위해서는 연주곡의 각 부분을 나눠 역할을 다양화하거나, 론도 형태로 연결하여 연주하게 한다. 노래를 기악활동에 접목하는 경우도 전체 악곡을 동일하게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노래 성부를 후원하거나 감상곡의 가락을 각인하는 활동에서도, 가락악기를 잘 연주하는 학생에게 부여된 부가적 과제로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통합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음악역량의 제고에 대한 처방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기악지도만을 위한 단원이 현저히 적고, 기악활동이 중심에 오더라도 다른 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짜여 있다. 즉, 노래를 부르거나, 감상곡을 듣거나, 창작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또는 해당 연주의 목적, 즉 쓰임새를 살펴보게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세트로 묶여 있다. 이를 통해 연주 실력을 성취목표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악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근 독일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기악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첫째, 악기의 학습보다 악기의 활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 둘째, 공통 악기를 자제하고 사용 가능한 악기의 폭을 넓힌다.
- 셋째, 학습 부담을 유발하는 긴 곡 또는 어려운 연주곡을 배제한다.
- 넷째, 분절적 기악활동을 지양하고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통합적 활동을 장려한다.

2. 제언

학교 음악교육에서 기악활동은 악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분야이지만, 연주 기능을 익혀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 편으로 거북한 분야일 수 있다. 이것은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주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여기는 교사는 기악지도를 피하기 쉽다. 특히 교실수업에서 교사는 악기 숙련도의 개인차와 집단학습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악지도에 대한 노하우는 교실의 전체 학생을 특정 악기의 연주자로 만드는 데 모이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선입관을 전제한다.

-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은 악기를 배워야 한다.
- 둘째, 악기 기능을 익히지 않고서는 좋은 연주 경험을 가질 수 없다.
- 셋째, 기악수업을 구별하여 운영하여야 효율적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제는 공통악기의 선호 및 그 종류의 확장, 연주법 지도에 대한 연수 요청, 기악 특유의 수업 유형 개발 등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만약 공통 악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할지 공감대를 이뤄야 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향의 접근은 공통 음악교과서의 사용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연주법 지도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면 초등음악교사는 다수의 악기를 지속적으로 익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악지도가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연주법에 대한 연수를 따로 받을 정도라면 어린 학생은 어떻게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을지 되짚어보아야 한다.

기악지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음악교과의 다른 영역도 그렇게 분화되어야 한다. 그 결과는 마치 과목이 늘어나듯이 음악 안에서 배워야 할 사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부분적 사항들이 서로 엮이지 않고 따로 지도되는 것은 융·복합을 강조하고 미래 역량의 제고를 지향하는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음악은 악기 연주나 노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향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악수업에서 되도록 영역 간 통합을 통해 음악에 대한 총체적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일 수 있다.

초등학교의 기악활동은 노래활동이나 감상활동보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초의 하나가 오르프 접근법이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실 기악수업이 특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르프 접근법의 아이디어는 ‘귄터-학교’(Günther-Schule) 설립(1924년) 및 ‘원초적 음악연습’(Elementare Musikübung)의 출간(1932년-1935년)에서 보듯이 20세기 전반에 이미 형성되었지만, 오르프 접근법의 국제적 인지도가 ‘어린이를 위한 음악’(Musik für Kinder)의 출현(1950년-1954년) 이후 높아졌음을 감안하면 대개 20세기 후반부터 악기를 활용한 일반 교실수업이 서구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한국의 기악지도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오르프 접근법의 전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독일 초등음악교과서의 기악활동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기악지도 현황과 그 방향성에서 차이가 난다.

덧붙이자면, 독일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접근이 기악영역의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염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적 접근 때문에 기악활동을 소화하는 지면이나 활동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또 하나의 우려로 학급 학생 전체가 공통으로 익히는 소위 개인 연주용 악기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개인의 연주 역량을 잠재우거나 장래의 악기 친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예컨대 전체 학생이 리코더나 단소를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장구도 단계적으로 계속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악활동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활동이 학생의 현재 및 장래의 삶에 실질적 기여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획일적 접근보다 다양한 역할의 부여로 협업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방향의 초등 기악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민경훈 (2014). 음악교과서의 효과적 분석을 위한 분석 준거 모델 개발. **예술교육연구**, 12(2), 43-66.
- 주대창 (2015). 학습 주제 중심의 실용적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구안. **음악교육연구**, 44(1), 219-242.
- 함희주 (2014). 독일 초등학교 교육특성에 따른 교육역량 및 음악교육역량 관련연구. **음악교육연구**, 43(1), 229-248.
- 함희주, 문경숙 (2016). 독일의 교과서 승인제도 및 음악 교과서 『론도(Rondo)』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7(1), 125-148.
- 홍정수, 조선우 (편) (2000). **음악은이**. 서울: 음악춘추사.
- Bildungsplan der Grundschule. Musik* (2016). Amtsblatt des Ministeriums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Baden-Württemberg.
- Braun-Rehm, B., Hellmann, A., & Ziglirou, D. (2016) *Fidelio 3*. Braunschweig: Westermann.
- _____. (2017) *Fidelio 4*. Braunschweig: Westermann.
- Krämer, C. & Junge, W. (2014/2017) *RONDO 3/4*. Offenburg: Mildenberger.
- <https://www.bildungsserver.de/Allgemeinbildende-Schulen-400-de.html>

ABSTRACT

Characteristics of Instrumental Activities in German Music Textbooks for Elementary Students

Ju, Dae Chang

The purpose of this present paper study is to highlight the significant teaching methods and implications of instrumental activities in German music textbooks for elementary students. Data were driven from Fidelio series for third and forth grades and RONDO 3/4 for the same grades as representative music textbooks in Germany. After providing a brief review of music instruments used in the textbooks, this paper describes the organizing patterns for instrumental lessons in the elementary music class. The result indicates that various interactions between instrumental activities and other musical activities are remarkable. The combination of multiple tasks with instrumental activitie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supporting children who are supposed to learn systematic know-how for using music instruments instead of practicing isolated techniques. This approach is related to introducing simple musical pieces and allowing optional instruments. It is argued that the musical competences of children for the future are developed through separated instrumental lessons in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instrumental activities, instrumental lesson, music textbook, elementary music class

투고일: 2018년 11월 27일, 심사(수정): 2019년 1월 12일(1월 13일), 게재확정일: 1월 29일